

##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19년 12월 4일(수) (14시00분)

장 소 :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4시00분 개의)

○의정팀장 이상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상진입니다.

지금부터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복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 박수)

김정미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 박수)

김영훈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 박수)

정애숙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 박수)

김미화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 박수)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위원회에서는 2건의 공무국외출장 심사보고의 건과 의원의 중국 3.1운동 100주년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항일운동 유적지 탐방 및 우리의 독립운동을 실증적으로 연구 조사하고자 중국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복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1운동 100주년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항일운동 유적지 연구 조사를 위해 중국으로 공무국외출장 및 선진북유럽 3개국의 복지제도 등을 벤치마킹 결과 보고를 듣고 의원 항일운동 유적지 탐사를 위한 중국 상행, 항주, 서안 등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위

해 희생하신 독립운동가의 항일유적지 연구 조사를 위해 해외출장을 계획함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 의거 박덕수, 제창록, 이일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1. 중국 공무국외출장 보고

○위원장 박성복 먼저 조미수 의장님으로부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신 독립유적지 탐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미수 안녕하십니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연말인데 저희 의회에 국외연수에 대해서 자세히 심사해 주러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19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5박 6일간 31개 경기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항일 유적지 방문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상해, 연길, 하얼빈이었으며 주요 연수내용은 1페이지를 보시면서 참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녀온 유적지들을 자세히 정리하고 갔다 온 것들을 스크랩을 했고 제일 마지막 장 16쪽을 보시면 제 연수결과에 대한 총평을 써서 제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배우고 익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기고자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독립군은 중국 동북지역을 무대로 곳곳에서 일본군과 투쟁함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역량을 세계에 전하면서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하여 국가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을 통해 우리민족의 창의성과 저력을 볼 수 있었으며 또한 여러 노선과 이념으로 전개된 독립운동은 갈등과 대립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연대와 통일을 지향하여 8.15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사는 한국 근대사의 중심이고 민족 역사의 미래를 이끌어 나아갈 정신적 동력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도만도 군인을 위한 위안소가 170여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치는데 성노예를 미화하여 부른 위안부, 대한민국 여성이 얼마나 많은 착취와 억압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성으로서 평생 눈물과 한으로 살아온 그들의 외침에 아직도 일본은 반성과 사과하지 않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1919년 3.1운동을 정점으로 조직적 독립운동을 펼치기 위하여 임시정부의 수립은 필요 불가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상하이 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할 수 있으나 2~3년 후에는 상하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였으며 우리 항일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가 이 문제를 잘 풀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지만 중국은 땅 자체를 국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쪽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한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독립군 최초로 승리한 봉오동 전투 유적지도 볼 수 있었고 북간도의 독립운동 사적지인 명동학교와 윤봉길 시인의 생가를 보면서 애국애족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나 저 자신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겨 보기도 하였습니다.

민중을 일깨우는 것은 역시 교육이라는 생각을 우리 조상님들도 하셨나 봅니다.

김약연 선생은 북간도에서 명동학교를 설립하여 청년들을 모아서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공부 시켜 각종 교육 계몽 사업을 벌여 한인동포들의 조조자립과 협동정신을 고취시키고 동지적 유대의 민족적 일체감을 조성하였으며 민족교육과 독립사상 고취에 정성을 다하여 민족의 미래를 준비해 가셨습니다.

1918년 1월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자결주의 천명하고 그 해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김약연 선생님을 중심으로 독립선언계획을 추진하여 만주와 노령의 독립운동단체들의 중심이 되어 1918년 무오년 음력 12월 무오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것이 재일한국 유학생 2.8독립선언과 궁극적으로는 3.1독립선언에 기폭제가 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얼빈 731부대가 있었던 곳을 전시관으로 만든 중국은 일본의 잔인함을 다시 한 번 알리는 곳으로 전쟁의 비극과 아픔을 한 번 더 알 수 있었던 장소였으며 세균무기를 개발하였던 하얼빈에 731부대는 영화로만 보고 말로만 들었던 것 상상 이상의 부대였습니다.

그 피해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은 하얼빈 731부대의 희생 국가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사살했던 하얼빈 역에 위치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후손으로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두만강 접경지대의 뗏목체험과 백두산 방문은 한반도 이복을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지 우리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한반도를 통하여 갈 수 있는 백두산을 상상하며 미래의 대한민국을 머리에 그려보고 왔습니다.

또 좋았던 중에 하나는 31개 시군의장들끼리 저녁에 식사나 차 시간을 가지면서 각 의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의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공유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있었더라면 저희가 그동안 90일이 회기입니다. 그 전에 7대까지는 90일이 회기였는데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는 110일까지 회기를 하시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의장님들과 교류하면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100일로 저희들이 회의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 광명시의회는 100일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만들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가장 긴 정례회가 제2차 정례회로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약 26일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 예산을 보는 26일간은 사실 의원님들한테는 공부하고 계속 연구하는 귀중한 시간들인데 이런 것들을 오늘 같은 날은 휴회를 합니다.

상임위원회를 휴회해서 내일부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루는 공부할 수 있는 휴회 시간들을 마련해서 회기 전체 일정들을 조정하면서 늘리면서 의원님들이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31개 의장 안에서 서로 좋은 의회 것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좋은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또 하나 드렸습니다.

그리고 갔다 온 이후에 저는 저희 지역사회에 청소년들이 외국에 선진지 견학 경험이 있는데 우리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이런 코스를 올해는 하기는 하셨더라구요.

이와 비슷한 코스를 하셨는데 이런 것을 픽스해서 저희가 임시정부 수립 다음에 위안부 박물관이라든지 백두산, 하얼빈 이런 것들을 픽스로 해서 매년마다 가는 학생들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잘 계획되어서 처리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곳저곳에 의견과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복 조미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위원 없어진다고

○의장 조미수 상하이에 저희 임시정부로 썼던 사무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2년이나 3년 사이에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그쪽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상하이가 최근에 세계적인 도시가 되면서 그쪽에 있는 지역이 도시개발로 재건축이 되면서 그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해서 저희 정부가 사면 어떻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땅 자체가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고서는 풀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

## 2. 북유럽 3국(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공무국외출장 보고

○위원장 박성복 더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이형덕 부의장님께서 선진국 제도 벤치마킹을 위해 북유럽 선진 3개국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신 이형덕 부의장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형덕 안녕하세요? 이형덕입니다.

2019년 광명시와 의왕시의회 북유럽 3개국 방문을 하고 돌아온 내용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8박 10일 동안 북유럽을 다녀온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와 의왕시의회 연합으로 총 13명의 인원으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3개국을 방문하여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도서관 등 시설들을 방문하고 선진국가의 문화와 다양한 사례들을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일의 기간 중에 3개국의 각 기관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으며 이 내용은 의회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먼저 노르웨이입니다.

높은 곳에 위치한 집들이 더 비싸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언덕을 배경삼은 마을마을은 액자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호수가 주변을 따라 마을을 이루는 노르웨이 주택은 곳곳이 휴양지 같아 우리나라 현실과는 거리가 있지만 언덕 높이와 재산의 가치가 비례한다고 합니다.

가공하지 않은 천해의 자연과 빙하와 피요르드로 아름다운 관광자원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땅, 가까운 산의 정상에는 빙하가 흐르고 산자락 끝에서 여름이 공존하는 노르웨이는 정말 여유롭고 안정된 자연이 곧 재원이 되는 운택한 경제도시였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사회복지기관 방문으로 오슬로 도시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비미션을 방문하였습

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모두를 위한 방이라는 슬로건을 표방하는 개방적인 비영리단체로 자원봉사, 후원, 교육, 지원활동 및 재능, 나눔 등 다양한 활동들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0~3세까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휴식을 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개방형 유치원과 다문화, 난민, 여성과 집 없는 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었고 특별히 알콜이나 마약중독자들에게는 의료적인 치료보다

○**위원장 박성복** 부의장님, 지금 유인물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의정팀장 이상진** 4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성복** 그리고 웬만하면 유인물로 갈음해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알아요.

○**부의장 이형덕** 마지막으로 아까 의장님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이었는데 저는 10일 간이였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예요.

제가 여기까지는 유인물로 하고 마무리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다녀왔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제가 정리해 놓은 2페이지 정도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에서 열거하지 못한 3개국의 도서관 방문에서 보았던 칸막이 없는 넓게 트인 공간에서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조용하지만 자유로운 분위기와 크기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북유럽 3개국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역시 풍부한 무공해 자연자원과 오래 된 역사적 유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선진복지보장제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국가보험제도는 고령연금, 가족연금, 실업수당, 장애수당, 질병보험, 재활수당, 출산휴가, 영유아수당, 입양시 육아수당, 자녀수당, 편부모수당, 입양수당, 장례보조금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되어 있었고, 스웨덴은 사회보험제도로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자녀수당과 신연금제도로 소득연동 차등연금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복지, 노동정책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었고, 핀란드 같은 경우 출산, 아동, 보육, 교육, 기초사회보장, 의료복지, 연금복지, 노인복지 등 여러 보장제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핀란드는 국민이면 누구나 동등한 교육의 기회와 보육의 국가 책임제로 이어진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세금부담으로 돌려받는 보장된 복지혜택은 곧 국민 최고의 행복지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풍부한 자연자원에서 얻는 북유럽의 경제적 재원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부러움의 대상일 뿐이었지만 재원이 업어도 실현 가능한 비미션의 복지정책이나 구리고덴 노인요양원의 리프트 시설 등은 접목해 볼만하며, 에스포시티의 아동복지정책은 곧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몇 년 사이에 다양한 선진 복지정책들을 반영하기 위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추진되고 있고 점차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의 복지 전달체계도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화를 꾀해야 하며 우리 재정여건과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 서비스 정책의 결정에 수혜자를 함께 포함시키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비스의 낭비를 막고 철저한 서비스 역량을 우리도 키워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는 자연 자원도 너무 좋았지만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1회용품을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꼭 배우고 실천해 가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수돗물이 바로 식수입니다. 어디서든 1회용 물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복지국가와 지역복지로 가는 미래 모습을 다시 한 번 그려봅니다.

환경, 장애, 노인, 아동, 가족 등 지역의 다양한 복지정책 과정에 관심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저희가 복지시설을 방문하면서 가장 특이했던 점은 제가 발표를 못 했지만 내용에 보면 노르웨이 사회복지 비미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는 자원봉사활동을 주위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여기 가서 봤던 것은 거기는 자원봉사를 1년 전에 본인이 예약을 해요.

그리고 1년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미션 같은 경우는 직원이 단 2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카페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조리하고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자원봉사활동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교통비나 자기 먹는 부분까지 자기가 자부담을 하면서 1년 계획을 세워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카페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고 특히 카페에서는 식사를 하면서 누구나 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 안에 밥을 먹는 사람이 식대를 내 것만 아니라 1인분을 더 추가해서 계산하고 감으로써 누구나 부담없이 돈이 없어도 와서 먹을 수 있는 작은 나눔이 생활화 되어 있다는 부분이 좋았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복지상태가 우리하고는 달랐습니다.

노인요양원을 갔는데 아파트 시설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생활보장이나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아프면 자존심도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아파트 형식이지만 대신 들어갈 때에는 여러 가지 인증에 의한 의사가 기준을 주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핀란드 같은 경우는 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운동장이 없어요.

모두가 녹지이고 운동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학교에서 놀았던 것은 운동이 없다는 것 하지만 아동이나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봤지만 그쪽 같은 경우는 특히 0세~만 2세까지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을 해야 되는 부모들한테 책임을 주었더라고요. 그 대신 복지 이런 급여가 탄탄했고 이런 부분들 요양원 같은 경우도 리프트 시설이 되어 있어서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경우는 리프트 시설이 있어서 침대 주변을 본인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벼운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저희 지역에서 접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 역시 저희도 눈이 작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나가서 보면서 여러 가지 복지, 환경들도 생각을 했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기면 사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이혼하면 누가 아이를 양육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점이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엄마가 하든 아빠가 하든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전혀 없고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도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서 1회용품을 쓰지 않는 나라 실질적으로 굉장히 걸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

만 실질적으로 소박한 안정된 부분들이 많이 돌아봄으로 해서 저희에게도 다시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게 되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도서관이 우리 같은 경우 거의 열람실로 칸으로 막혀 있는데 거기는 정말 도서관이 거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통이예요. 완전 개방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개방된 상황에서 요리도 하고 있었고 바느질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제도화 되어서 안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보다 복지 계통에 같이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험 사례들을 같이 접목하고 우리가 배우고 돌아옴으로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험한 사례들을 가지고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스웨덴에 요양원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것인가요?

○**부의장 이형덕** 운영은 구에서 운영을 하더라구요.

비용들 같은 경우는 구에서 시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오기까지는 의사들의 진단이나 같이 협의하는 분들의 인증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려우신 부분들이라고 인증이 되면 그 부분들은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은 없나요?

○**이형덕 부의장** 시립 요양원 한 군데 있습니다.

보건소 뒤에 있는데 거기도 워낙 많은 분들 200여분이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우리가 그러한 복지상태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런 모습들이 곧 우리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가야 하고, 대신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세금이 만약에 1백만원을 받는다면 40만원 정도가 세금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그것이 돌아오는 복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크게 빈부의 격차도 느끼지 않고 우리처럼 재산을 모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위원장 박성복** 그것이 선진국의 특징인데

○**부의장 이형덕** 부럽지요.

○**위원장 박성복** 자기가 별어서 자기가 낸 것을 나중에 노후에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은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상진** 먼저 바쁘신 중에도 2019년도 제3차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 소집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명시의회 의원의 3·1운동 100주년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항일운동 유적지 등을 탐사하여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의원 3명과 수행원 2명 총 5명이 2019년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4박 5일 동안 중국의 항일 운동 유적지를 탐사하는 일정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함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기준은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5조 별표를 별도로 드렸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 소집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의 건

(11시04분)

○위원장 박성복 그러면 2019년도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회 간사인 의정팀장은 2019년도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상진 2019년도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3·1운동 100주년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항일 유적지 등을 탐사하는 출장으로 박덕수 운영위원장,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이일규 의원과 수행직원 엄기목 팀장, 박태수 팀장으로 5명이 중국으로 공무국외출장 방문단을 구성하였으며 출장기간은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4박 5일입니다.

연수목적은 3·1운동 100주년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항일운동 유적지를 직접 탐사하고 일제의 침략 만행과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실증적으로 연구 조사하며, 최근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 등 망언과 망동에 결연히 대처하고 지도자로서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자 연수를 계획하였습니다.

방문 국가는 중국이며 방문지역은 상해, 가흥, 항주, 서안입니다.

오늘 심사하실 의원 공무국외출장 연수인원은 3명입니다.

직원들은 집행부에서 별도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사항으로 연수국가 및 방문기관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방문지로는 상해임시정부, 윤봉길 의사 의거지, 김구선생 피난처, 임시정부요인 주거지, 장제스총독 체포장소, 서안사변지원지, 광복국제2지대 훈련장소 및 주둔장소, 광복군총사령부 주둔지, 서안성벽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부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인 12월 18일은 10시50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11시50분 상해에 도착하여 상해임시정부 청사, 윤봉길의사 의거지, 일본육군대장 다나카 저격장소인 황포강 탐방을 끝으로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2일차에는 김구선생 피난처, 임시정부요인 주거지를 탐방하고 향주로 이동하여 향주 첫 번째 청사, 임시정부요인 주거지, 한국독립당사 사무실구지를 탐방하게 되겠습니다.홍

3일차에는 08시15분에 향주공항을 출발하여 10시30분에 서안공항에 도착 후 화청지, 진시왕릉, 병마용, 장제스총독 체포장소인 서안사변진원지를 탐방합니다.

4일차에는 광복군제2지대 OSS훈련장소 및 주둔지와 광복군총사령부 주둔지, 한국청년전자공작대구지를 탐방하게 되겠습니다.

5일차에는 서안성벽을 관람하고 13시25분에 서안공항을 출발하여 16시5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총여비는 834만480원이며 의원 3인 503만4,480원이며, 직원 2인 258만 3,420원으로 소요경비는 의회사무국에서 부담합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출장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본받고 계승 발전시키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 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에서 제출한 계획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복**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2019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위원님.

○**김정미위원** 광명시 다섯 분만 단독으로 가시는 겁니까?

○**의정팀장 이상진** 네, 의원님 세 분하고 직원 두 명하고

○**김정미위원** 결과 보고한 것을 보면 조인하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아닌가요?

○**위원장 박성복** 맞아요. 의왕시하고 간 것은 합동으로 했고 이번에는 단독으로

○**의정팀장 이상진** 그것은 몇 개 시의회에서 같이 가자면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같이 가시는 것이고

○**위원장 박성복** 지난번에는 의장단에서 추진해서 간 것이고

○**김정미위원** 이번에는 광명시에서 다섯 분만 가시는 건가요?

○**의정팀장 이상진** 네.

○**위원장 박성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실 때 상해 사무소가 폐쇄가 될 것 같으니까 이번 가는 취지로 안 가신 의원님들이 다시 가서 보자는

○**의정팀장 이상진** 그런데 지난번에 의장님이 갔다 오셨던 데는 상해에 도착해서 연길, 하얼빈, 백두산으로 다녀오신 코스고 지금 가는 코스는 상해하고 가흥 남부쪽으로 독립유공지를 가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국외출장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광명시의회 의원 국외출장계획은 시의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 5명

박성복 김정미 김미화

정애숙 김영훈